https://doi.org/10.18856/jpn.2020.26.3.009

의료 서사와 의료 윤리*

최성민**

1. 서론
2. 펠레그리노의 의료 윤리
3. 문학 속의 의료 윤리
4. 대중 서사 속의 의료 윤리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먼저 펠레그리노의 〈의철학의 재탄생〉에서 강조하는 현대적 의료 윤리의 가치 변화를 고찰하였다. 펠레그리노는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강조해온 철학자이다. 그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료 윤리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펠레그리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문학과 대중서사텍스트 속에서 문제적 상황을 주목하였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의료 윤리가 무엇을 답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 것이다.

의료인들은 철학적 딜레마를 겪거나 현실과 윤리 사이의 갈등을 겪어왔다. 펠레그리노는 의료인은 질병과의 싸움에 앞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매우 당위적인 선언처럼 보이지만, 문학 작품과 대중서사텍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www.kci.go.kr

스트 속의 의료인들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자주 노출된다.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를 어떻게 '좋음'의 상태로 이끌어야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으며, 메디컬 드라마들을 통해 대중들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의료인들 또한 큰 고난에 처해 있지만, 동시에 대중의 존경을 받고 윤리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의료가 일상의 서사가 된 지금, 우리에게 의료 윤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의료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의료 서사 속에서 구체화된 윤리적 문제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펠레그리노, 의료 서사, 의료 윤리, 메디컬드라마, 페스트, 이청준, 코로나19.)

1. 서론

인간은 서사적 동물이다. 식상하고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듣고, 보고, 즐기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삶 자체는 하나의 서사이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서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집단으로서의 '사회'도 그 자체의 서사를 이어가며 유지된다.

2020년, 우리 개인과 사회의 서사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른바 '코로나19'라 불리는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이다. 일찍이 수잔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질병은 질병 그 자체로, 환자도 환자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이 '악'의 은유로 활용하고, 환자의 투병을 '전쟁'의 은유로 바라볼 때, 환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못

www.kci.go.kr

을 저지른 죄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1] 질병은 질병이고, 치료는 치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질병과의 싸움은 '전쟁'보다 치열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것이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어쩌면 그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표현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서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게 쓰이고 있다. 이것이 서사라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대단히 거대한 '사건(event)'을 맞이하였고, 서사 분석적 용어로는 커다란 '중핵'적 사건에 직면에 있다.

우리는, 서사텍스트 안에서 한 인물이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하곤 했다. 하나의 사건이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또 다른 사건과 어떤 인과적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분석하기도 한다. 한 인물이 머물렀던 공간과 이동하는 공간의 의미를 사건들과 연계하여 설명하려 하기도 하였다. 소설, 영화, 드라마, 연극, 게임, 웹툰 등, 대중서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대중서사텍스트 안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2020년 1월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 주변의 인물, 그리고 그 삶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공간과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2020년 2월말 우리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종교 단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2020년 5월초 우리는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들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었

1)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133-136쪽.
이에 대해서는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15-344쪽 참조.

www.kci.go.kr

다. 우한이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모르던 사람도, 신천지라는 종교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이태원 클럽을 구경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각자의 삶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서사연구자가 아니라 평범한 대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이후 여행도, 수업도, 만남도, 종교행사도,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을 필요로 하는 비일상이 되었다. 반면, 비대면 수업과 마스크 착용, 수시로 울리는 재난 문자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 '덕분에' 일부의 일상이나마 유지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다. 2월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었던 대구로 달려갔던 의료인들의 헌신은 감동을 자아냈고, 방역마스크와 고글에 짓눌린 상처와 방역복을 입고 지쳐 앉은 그들의 모습은 존경의 마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의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 코로나19의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 논문은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의료'와 우리의 삶이라는 '서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료인'이라는 존재이다. 의료인은 의료를 행하는 주체이면서, 의료와 관련된 우리 삶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존재보다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이 요구되며, 헌신과 희생의 윤리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 의료인의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의료인이 응원과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재난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그들이 우리

www.kci.go.kr

를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학이나 대중서사텍스트에서 접했던 의료인들의 모습이 헌신과 희생과 가까웠던 것만은 아니다. 대중서사 속의 의료인과 현실의 의료인이 똑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의료인의 당위적 윤리와 의료인의 실제적 현실 역시 똑같지 않다.

본 논문은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펠레그리노의 저작을 모은 책『의철학의 재탄생(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2]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다시 되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윤리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메디컬드라마를 비롯한 대중서사텍스트들을 통해 다시금 성찰해보고자 한다.

2. 펠레그리노의 의료 윤리

펠레그리노는 '의료철학', 혹은 '의철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인물이다. 내과 의사이자 생명윤리학자였던 그는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8년 조지타운 대학의 임상의학 교수로 임명된 이후로는 의료인의 윤리적 태도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왔다.[3] 그에 따르면 의학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이어야 하며,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은 '환자의 좋음(the good of the patient)'

2) Edmund D. Pellegrino,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A Pellegrino Reader*, edited by H. Tristram Engelhardt, Jr. and Fabrice Jotter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3) 최우석,「'의료인'의 의무윤리와 덕윤리의 상보적 이해: 펠레그리노(E. Pellegrino)의 논의를 중심으로」,『한국의료윤리학회지』23권 1호, 한국의료윤리학회, 42쪽.

www.kci.go.kr

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

펠레그리노의 저서는 아직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것은 없다. “펠레그리노 독본(A Pellegrino Reader)”라는 부제가 붙은 『의철학의 재탄생(The Philosophy of Medical Reborn)』[4]은 그의 주요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어서 펠레그리노의 철학은 물론, 현대 의료철학의 핵심적 지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해주는 책이다. 『의철학의 재탄생』의 제 1편집자인 엥겔하르트(H. Tristram Engelhardt, Jr)는 책의 서문에서 20세기 후반 생명윤리와 의료인문학의 출현은 펠레그리노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또한 『의철학의 재탄생』에 수록된 펠레그리노의 글들을 통해, 엥겔하르트는 의철학, 의료인문학, 생명윤리에 걸친 펠레그리노의 연구에 대한 헌정을 바치고 있다.[5]

> 펠레그리노는 의학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의사/환자 관계의 본질과 중요성, 덕을 갖춘 의사의 본성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인간 활동을 위한 전제들에 관련된 목적론적 규약이나 내적 윤리나 조건들에 대한 것을 포괄한다.[6]

『의철학의 재탄생』은 네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섹션의 제목은 “의철학을 향하여”, 두 번째 섹션은 “의사-환자 관계”, 세 번째 섹션은 “의료 실천에서의 덕(virtue)”, 네 번

4) Edmund D. Pellegrino,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A Pellegrino Reader,* edited by H. Tristram Engelhardt, Jr. and Fabrice Jotter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5) 김현수, 「펠레그리노를 통한 의료인문학」, 『인문학연구』 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01-320쪽.

6) Edmund D. Pellegrino,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A Pellegrino Reader,* edited by H. Tristram Engelhardt, Jr. and Fabrice Jotter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p.2.

www.kci.go.kr

째 섹션은 “인본주의와 히포크라테스: 미래에 직면하여”이다.

펠레그리노는 먼저 의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 설명 과정에서 의학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실천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인간의 삶과 욕망,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철학적 통찰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의철학의 목적 역시 환자의 치유, 환자의 ‘좋음’에 대한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사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의학적 돌봄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논증에도 도달한다.

펠레그리노가 의료 윤리에 대하여 주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전통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펠레그리노는 새로운 의료 윤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의학적 도덕성의 전통적인 종교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낙태, 안락사, DNA 재조합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가치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도 주목한다. 의료 윤리가 지금까지 의사 중심적이었고, 환자와 사회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점도 지적한다.[7)]

펠레그리노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고통에 당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며 그 존엄성을 보전하라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취약한 환자와 관계 맺는 의료인에게 있어, 더욱 특별히 요구되는 보편준칙이다. 펠레그리노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같은 관점에서 환자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존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의료인들의 사익 추구와 전통적인 ‘덕 윤리’ 사이에서의 딜레마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펠레그리노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상호

7) E. D. Pellegrino, “Toward a Reconstruction of Medical Mor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6(2), Taylor & Francis, 2006, pp.65-71.

www.kci.go.kr

소통과 존중 속에서 실천적 지혜를 모색해야한다는, 다소 당위적인 직업윤리를 내세운다. 8)

펠레그리노는 의사의 경우, 한 개인으로서의 양심과 의료 전문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의 갈등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펠레그리노는 전통적인 히포크라테스적 윤리를 다시 돌이켜 떠올리면서도, 경험과 체험의 구체성을 접목할 수 있는 인문학적 훈련을 도입해야만 의료인의 삶 자체에 그러한 윤리 의식이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의사의 목표는 인간인 환자의 '인간 가치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철학적 바탕의 윤리를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덕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진정한 치유적 관계를 맺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9)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서사적 상황'에 대한 경험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79년 펠레그리노의 유명한 선언, "의학은 가장 인간적 과학이며 가장 경험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 인문학입니다(Medicine is the most humane of sciences, the most empiric of arts. and the most scientific of humanities)"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펠레그리노는 단순한 교양 교육으로서가

8) 최우석, 「'의료인'의 의무윤리와 덕윤리의 상보적 이해: 펠레그리노(E. Pellegrino)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 1호, 한국의료윤리학회, 39-56쪽 참조.
9) E. D. Pellegrino, "Toward a Reconstruction of Medical Mor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6(2), Taylor & Francis, 2006, p.65.

www.kci.go.kr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 교육'을 강조한다.[10] 본 논문이 뒤에서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구체적인 서사 텍스트 안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역시, 펠레그리노가 주장하는 의료 윤리 교육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철학의 재탄생』 2장에 수록된 「의료의 철학(Philosophy of Medicine)」에서 펠레그리노는 '의료종사자'가 선한 윤리를 갖춘 '선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제도와 선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보기로 하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지난 2월말 대구로 달려간 의료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내곤 하였다. 이것이 일회적 서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의료 윤리'의 차원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간 의료인 개개인의 개별적 윤리 의식을 요구하거나 점검하는 것, 혹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 의료인들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3. 문학 속의 의료 윤리

펠레그리노의 말처럼, 의학은 가장 인간적이며, 의료적 행위는 가장 인간적인 실천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윤리적 의사'라는 말은 그다지 익

10) 김현수, 「펠레그리노를 통한 의료인문학」, 『인문학연구』 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13쪽.

www.kci.go.kr

숙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고, 개개인마다 건강 검진이나 의사와의 진료 접촉도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의과대학이라는 곳은 가장 뛰어난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진학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경외감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믿음도 큰 편이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짧은 진료에 대한 불만, 비용과 처방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고, 의료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뉴스들도 끊이질 않는다.[12]

문학평론가 정과리는 문학 작품 속에 의사가 자주 등장하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을 좌우할 권리를,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존재"[13]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사는 마치 신처럼 타인의 생명과 생존을 좌우하는 인물인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그 환자를 돌보는 보조적 도우미의 역할에 선다는 점에서 "타인의 보조자"이자 "타인의 심부름꾼"처럼 살아가기도 한다.[14]

그러한 면에서 의사 스스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화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학작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먼저 떠올려볼 수 있겠다. 1940년대 프랑스령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해안도시에 죽은 쥐떼와 함께 페스트가 발병하면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리유 Rieux'는 주인공으로 페스트 환자들

11) 〈전문직 중 '의사' 가장 신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2015.10.21.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4051260 (접속일 2020.7.15.)
12) 〈의사 불신 시대 ..... 5년간 의료소송 2만건〉, 『의협신문』, 2019.5.27.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33 (접속일 2020.7.15.)
13) 정과리, 「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의학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134쪽.
14) 정과리, 「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의학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137쪽.

www.kci.go.kr

을 돌보는 의사다. 리유와 더불어, 말단 공무원 '그랑', 저항적 기질을 가진 '타루', 파리에서 온 신문기자 '랑베르',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이해하는 신부 '파늘루'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리유는 어린 아이가 비명 끝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땀과 눈물을 흘리며 분노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에게 다가온 파늘루와의 대화에서, 리유는 의사로서 자신은 인류의 구원이나 신의 은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건강'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 "이해합니다." 파늘루가 중얼거렸다. "정말 우리 힘에는 도가 넘치는 일이니 반항심도 생길 만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 리유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열을 기울여서 파늘루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
> "아닙니다, 신부님."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고통받도록 ; 인용자) 창조해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중략)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나 거창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원대한 포부는 없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건강이지요."[15]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의사는 탄생과 죽음을 함께하는 존재이다. 출생의 증명도 죽음의 확인도 의사를 거쳐야만 한다. 소설『페스트』의 헌신적 의사 리유는 의사에게 대한 과도한 존경도, 과도한 책임감도, 과도한 운명도 거부한다. 다만 그는 페스트라는 죽음의 질병이 덮쳐온 환자들의 건강

15) 알베르 카뮈,『페스트』, 김화영 역, 민음사, 2011, 284-285쪽.

www.kci.go.kr

을 위해 헌신적으로 그 질병과 맞서 싸운다.

타루는 법관인 아버지가 가혹한 사형 판결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것을 보고 사회와의 저항적 투쟁에 나선 사람이다. 타루는 리유와의 대화에서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 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16]라고 말한다.

타루와 리유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물론 제3의 범주, 즉 진정한 의사로서의 범주가 필요하겠만, 그러나 이런 것은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은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경우에는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그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희생자들 가운데서 나는 적어도 어떻게 하면 제3의 범주, 즉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탐구할 수는 있습니다."
>
> 타루는 이야기를 맺으면서, 다리 한쪽을 흔들따가 테라스 바닥을 가볍게 탁탁 치는 것이었다. 잠시 동안 묵묵히 있던 의사는 몸을 약간 일으키면서 타루에게,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
> "물론 그건 공감이죠."[17]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성자(聖子)의 윤리'가 아니라, '직업윤리'일 뿐이다. 다만 그 직업은 생명의 문제와 너무나 밀접한 것이어서 한층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타루는 그 윤리적 핵심에 '공감'이 있다고

16)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역, 민음사, 2011, 329쪽.
17)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역, 민음사, 2011, 331쪽.

www.kci.go.kr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은 질병과 죽음에 맞서 싸우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어느 순간 그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겠지만, 환자 개개인에게 죽음은 단 한 번 찾아오는 가장 큰 공포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질병은 언제나 또 다른 변이와 양상으로 반복하여 찾아오지만, 질병에 대해 해석하기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의사의 몫이다.

이 소설의 초반부에 '페스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리유의 선배 의사 리샤르는 페스트로 단정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상황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지사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룬다. 이때 리유는 병명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엄중한 조치가 무엇보다 급하다고 주장한다. 지사는 결국 "이것이 설령 페스트가 아니라 해도,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예방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18]으로 그의 뜻을 이해한다.

'정치'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적 풀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면, 감염병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의사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정치적이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19]

이청준의 소설『당신들의 천국』에는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소록도 병

18) 알베르 카뮈,『페스트』, 김화영 역, 민음사, 2011, 73쪽.

19)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되었다. 3개월여 만에 전세계 대유행의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고, 6개월여 만에 감염자 1300만 명 이상, 사망자 58만 명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초기에 안과 의사 리원량의 경고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인간 대 인간 감염은 없다'는 잘못된 상황 파악이 없었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www.kci.go.kr

원에 부임한 조백헌 병원장과 환자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펼쳐진다. 조백헌 원장은 소록도 환자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다가서려고 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미 사랑이 억압과 폭력으로 바뀌어 다가왔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전 원장이었던 주정수 원장은 소록도를 원생들의 낙원으로 꾸며놓겠다고 다짐하며,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중략) 그 서러운 멸시와 박해의 기억을 안고 여러분은 그 절망적인 유랑의 길을 몇천리 몇만리나 걸어 헤매야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유랑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가엾은 이웃들과 함께 이곳에다 여러분의 새 고향을 꾸밉시다. 고향을 꾸며놓고 아직도 이웃과 가족들에게서마저 서러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이곳으로 맞아들여 그들과도 정다운 이웃으로 오순도순 보람 있는 삶을 누려봅시다.[20]

원생들은 주정수 원장의 뜻에 감동을 받아 누구라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원생들은 모두가 만족했고 원장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2차 공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주정수의 신념은 그곳을 화려하고 큰 낙원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모든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원장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신념은 원생과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통제는 강화되었고, 점차 폭력과 채찍질은 심해져갔다.

> 주정수의 부임 이후로는 거의 모든 일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원생들은 즐거워할 줄을 몰랐다. 섬 안에 시설이 한 가지씩 늘어갈 때마다 그만큼 섬 전체가 천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지옥으로만 변해가고 있었듯이, 이번데도 이 섬은 공원이 하나 더 늘고 그곳에 바쳐진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노력이나 희생의 크기만큼 섬은 점점 더

20)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95(1976), 101-102쪽.

www.kci.go.kr

낙원과는 인연이 멀어져가고 있었다.[21]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환자와 원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주정수 원장의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주정수 원장은 자신 스스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던 동상 앞에서 비수를 감추고 달려든 한 청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 뒤에 부임한 조백헌 원장에 대해서도 원생들은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조백헌 원장의 축구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바다를 메우려는 거대한 사업은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럼에도 조백헌 원장은 원생들을 설득하고 나서며, 결국 간척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다. 도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간척 사업의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전출당했던 조 원장이 5년 뒤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오면서 섬 사람들과 운명적 화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평론가 김현은 이 소설의 초반본 해설에서 자생적 운명에 근거한 힘의 행사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힘의 행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백헌이 힘의 행사자를 돕는 보조자의 위치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끌어내지 못했을 결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청준이 이상욱을 『당신들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조백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원장의 윤리에 기초한 천국이란, 환자를 환자답게 만드는 이인칭 복수 당신들의 천국"이며 그것은 자생적 운명에 의거하지 않은 천국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다.

결국 주정수의 서사와 조백헌의 서사는 같지 않았지만, 소록도 나환자 원생들의 서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자가 배제되고 원생이 배제된 사랑, 인술, 낙원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

21)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95(1976), 155쪽.

www.kci.go.kr

소설 속 이상욱의 편지는 '환자'가 '인간'이 되기 위한 해방의 가능성은 오로지 탈출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환자에서 해방을 꿈꿀 때", "환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었고, 공포를 박차고 그것을 선택할 때 탈출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상욱은 조백헌 원장의 부임 이후 탈출자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모범적인 요양소'로 변해서이거나 '소망스러운 낙토'가 되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상욱은 '천국의 꿈을 실현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원생들은 참으로 환자다운 환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섬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선 다른 분들처럼 덮어놓고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원생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섬을 꾸미게 하고 그곳에 남아 사는 데 불만이 없을 만큼 각별한 긍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중략) 원생들은 참으로 환자다운 환자가 되어갈수록, 그리고 그들의 천국이 자랑스러워지면 자랑스러워질수록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22]

소설가 이청준은 2000년 '이청준 전집'에 재편집되어 수록된 『당신들의 천국』에 덧붙인 '작가노트'에서 소록도 병원의 실제 주인공 조창원 원장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을 빌어 "불퇴전의 승부욕으로 소록도나 환자들의 일을 곧장 정치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경영"하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을 담아 이 소설의 결말을 썼음을 암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결국 개발 독재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음에 대해 "그것은 원장님을 위해서나 그 섬의 참 운명, 나아가 제 소설이나 그 주인공 조백헌 원장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23]이라고 말하고 있다.

---

22)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95(1976), 400쪽.
23) 이청준, 「작가노트: 여전한 현실의 화두,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전집 장편소설4: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446-447쪽.

www.kci.go.kr

어느 암병동의 의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에게 "다시는 보지 맙시다."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다. 매정한 듯 말하였지만, 그것이야말로 '재발'되지 말라는 기원을 담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의료 현실은 늘 그렇게 '환자'를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끝맺어지지 않는다. 병의원을 나서는 환자의 손에는 다음 진료일자가 찍혀 있는 종이가 들려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병의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정기 검진'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보험' 광고의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펠레그리노가 말하는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환자의 좋음'은 단순히 퇴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페스트』에서 언급되었듯,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 '환자가 아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가상의 이데아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청준의 또 다른 소설, 단편 「조만득 씨」를 읽다보면,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상이한 '좋음'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만 상황에 놓인다.

평범한 이발사이자 효자였던 조만득 씨는 누적된 생활고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과대망상성 정신분열증[24]에 걸린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조만득 씨는 그곳에서 자신이 백만장자라 착각하며 행복하게 생활한다. 의사나 간호사를 자신의 부하직원이거나 비서라고 생각하며 비하하기도 하고, 진짜 백만장자처럼 돈을 낭비하기도 한다. 주치의 민 박사는 조만득 씨에게 진짜 현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진료에 최선을 다 한다. 그러나 '미스윤'으로 지칭되는 윤 간호사는 행복한 그만의 세계에 머

24) 정신분열증은 현재, '조현병'으로 변경된 병명을 사용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2400
(접속일 2020.7.15.)

www.kci.go.kr

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 이들에겐 차라리 행복한 망상이 축복일 수 있었다. 망상을 깨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선 병원이라는 곳이 잔인하고 무책임한 처형장일 수 있었다. 망상에서 깨어났을 때의 무기력하고 불안스런 치유자들의 퇴원. 깨어나서 다시 어깨에 걸머질 그 냉혹스럽고 압도적인 현실의 무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이 과연 그것을 견디어 버텨 나갈 힘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미스 윤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다.
>
> 하지만 병원이란 원래가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병원은 다만 그들에게서 망상의 재산을 빼앗아 주는 것을 지상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의 환자가 돌아가서 만날 현실의 무게 따위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 민 박사는 바로 그런 의사들의 표본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만득 씨로부터 그의 재력을 어김없이 모두 빼앗아 낼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알거지로 만들어 서둘러 병원을 나가게 할 것이었다.[25]

페스트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나 나병과 같은 만성감염병과는 달리, 정신적 질환은 의사의 입장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예방한다는 치료 행위와 달리, 정신 질환의 치료는 구체적으로 싸워야하는 병인(病因)이 불분명하다. 특히 이 소설 속에서 언급된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과 같은 '병인'과 '환자'의 가시적 구별조차 어렵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거해야 할 구체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조만득 씨에 대한 민 박사와 미스 윤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 박사의 경우, 조만득 씨의 실제 현실에서 벗어난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거

25) 이청준,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48쪽.

www.kci.go.kr

나, 혹은 그것의 제거가 자신의 책무라고 믿는 것이다. 미스 윤의 경우에는 환자의 행복과 생존, 혹은 '환자의 좋음'이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미스 윤의 입장에서 볼 때, 조만득 씨에게서 망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 냉혹하고 압도적인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의 생존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민 박사는 환자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질병'의 치료 혹은 망상의 제거만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앓아 누워 있는 노모와 노름꾼이자 협박범 동생, 바람난 아내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은 조만득 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리가 없었다. 조만득 씨가 그것을 원할 리 없었다. 미스 윤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그가 가령 지금 광인이 아닌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선택이 달가울 리 없었다.[26]

> 민 박사는 조만득 씨의 인간과 그의 증세를 비정스럽도록 확고하게 장악해 나갔다. 처음에는 물론 반강제적인 수단도 불사할 때가 있었다. 민 박사 자신의 확고부동한 자세와 이해성 깊은 설득 이외에 필요할 때는 경비간호원의 위협적인 완력을 비는 수도 있었고, 형세가 심할 때는 오락실 출입이나 배식을 금지하는 책벌도 가했다.[27]

조만득 씨는 민 박사의 노력으로 망상을 조금씩 깨뜨리게 되고, 결국 퇴원을 하게 된다. 치료 과정에서 조만득 씨는 정신분열적 증상으로 호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때로는 불안해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했다. 그에게서는 점차 웃음기가 사라져갔고, 착각 속에 존재하던 그의 재력도 사라져갔다.

---

26) 이청준,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55쪽.
27) 이청준,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56쪽.

www.kci.go.kr

"그래 요즘 어머니 병세는 좀 어떠시냐?"

그리고 그것으로 조만득 씨의 얼굴에선 병원을 들어왔을 때의 그 행복스런 웃음기가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민 박사의 싸움은 이제 그것으로 끝장이 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조만득 씨로부터 재력과 웃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28]

미스 윤은 퇴원을 하는 조만득 씨를 보면서 "그게 도대체 당사자의 삶을 위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걱정을 한다. 불안한 것은 미스 윤만이 아니었다. 민 박사도 평소와 달리 조만득 씨의 퇴원 이후 그의 뒷소식을 필요 이상으로 궁금해했다. 미스 윤은 불안해하는 민 박사를 보고 은근히 힐난하듯이, 좀 더 병원에 붙잡아두지 않았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민 박사는 이렇게 답한다.

"아니지, 그가 돌아가야 할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병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린 어쨌거나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이거든."[29]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만 조만득 씨가 다시 미쳐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미쳐버리는 대신, 앓아 누운 어머니와 말썽쟁이 아우를 차례로 목을 눌러 죽였다.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범행을 자백하였다. 민 박사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한다. 그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걸로 보아서 위인이 아주 미쳐

28) 이청준,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67-368쪽.

29) 이청준,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71쪽.

www.kci.go.kr

버린 건 아니었어. 하긴 미치지 않은 쪽이 더욱 비극이었지만."[30]

'미치지 않은 쪽이 더욱 비극'이었다는 민 박사의 말은 결국, 민 박사가 아니라 미스 윤의 판단이 옳았음을 소극적이나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엉뚱한 사고를 저지르고 사건 무마비를 달라고 하거나 리어카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장사 밑천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동생이 있고, 노모는 20년째 앓아 누운 조만득 씨는 주변에서 효자 소리를 듣지만, 그는 결국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동장의 의뢰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지만, 그를 살리는 것은 그의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청준의 단편『조만득 씨』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있어 환자,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진료'와 '의료 행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펠레그리노가 치유에 있어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본다.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학적 조우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아픈 사람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크게 보았을 때 그 관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지점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의무로 간주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의료 윤리는 치유 관계에서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31]

의사는 질병을 환자로부터 분리시켜 제거하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되고, 질병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환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그를 '좋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많은 의료 기기들

30) 이청준,「조만득 씨」,『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376쪽.
31) E. D. Pellegrino, "Toward a Reconstruction of Medical Mor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6(2), Taylor & Francis, 2006, p.65.

www.kci.go.kr

에 둘러싸여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지점이다.

4. 대중 서사 속의 의료 윤리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BC.460-377)는 무엇보다 의사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지금도 의사의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중요한 의례의 몫을 담당한다. 그것은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할 것",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존중할 것", "위협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의사들은 엄청난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짐을 지켜 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전히 의사들도 치료법을 모르는 질병이 많으며, 신체와 건강의 원리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학습과 노력,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보상이 늘 충분하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성과에 비해 실패가 더 자주, 더 많이 부각되기도 한다.[32]

자연스럽게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의사가 전달하는 주의사항과 금기, 가령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할 것'과 같은 지침은 언제나 지키기 쉽지 않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확인하기보다는 질병을 들춰내기 위한 과정처럼 여겨지고, 그 이전의 문진 과정은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자아비판

32)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3, 47-48쪽.

www.kci.go.kr

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병원의 진료비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는 마치 세금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만 틀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험 관련 광고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될 나를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환자의 심리와 의사의 상호적 소통 관계 문제를 현실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대중서사 텍스트들이다. 의료 현장을 다루거나 의료인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은 전통적으로도 많았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중적 서사가 의료 현장을 다루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은 병원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탄생과 죽음은 물론, 질병의 진단과 확인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서사적 텍스트에서 병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법한 공간이 된다.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에 방송된 메디컬 드라마 중에 인기를 모았던 몇 개의 드라마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33] 2020년 3월부터 12부작으로 방송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의료 관련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획의도 중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 '메디컬'이라 쓰고, '라이프'라 읽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다.
>
>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 있는

33) 메디컬드라마들의 양상과 유형들, 관련 연구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성민, 「한국 의학 드라마 연구 현황과 전망」, 『인문학연구』 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43-75쪽; 원용진 외, 「메디컬 드라마의 크로노토프」, 『대중서사연구』 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169-216쪽.

www.kci.go.kr

> 곳.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의 전혀 다른 인사들이 공존하는 곳. 같은 병을 가진 것만으로 큰 힘이 되다 가도, 때론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는 아이러니 한 곳. 흡사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곳. 바로 병원이다.[34]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의사들끼리의 상호 관계와 그들의 희로애락을 다루는 것에 보다 집중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현실 묘사와 성찰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엿보인다. 9화에서는 총담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재원'이라는 아이가 입원을 한다. 수술을 앞두고 외과 레지던트 장겨울(신현빈 분)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수술 과정을 전문적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지만, 보호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잠시 후 소아외과 조교수 안정원(유연석 분)은 보호자에게 최대한 수술 과정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서 "걱정 많이 안하셔도 돼요."라고 말한다. 보호자는 그 설명을 듣고 "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했어요."라고 말한다. 수술이 끝난 후, 아이의 회복이 걱정되는 보호자가 회복실을 기웃거리자, 장겨울은 보호자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친절히 설명한다.

환자와의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안정원의 행동이 장겨울에게도 전달되어 감화를 시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드라마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교감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장면이기도 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어떠한 의사를 원하는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2016년 연말에 SBS에서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는 30%에 육박하는

34) 신원호 연출, 〈슬기로운 의사생활〉, tvN, 2020.
http://program.tving.com/tvn/doctorlife/6/Contents/Html (접속일: 2020.7.15.)

www.kci.go.kr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다. 2020년 연초에 방송된 속편 〈낭만닥터 김사부2〉 역시도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도심 한복판에 커다랗고 높게 세워진 대형병원들처럼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병원이 아니라,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돌담병원'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려는 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다. 김사부로 불리는 주인공 부용주(한석규 분)는 천재 외과 의사로 각광을 받지만 환자의 죽음을 계기로 도망치듯 돌담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돌담병원과 달리 정치적 이익과 욕망이 집결된 '거대병원'은 대립적 선악 구도를 이루며 대비된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설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따뜻한 의술을 펴려는 김사부와 그의 동료 강동주(유연석 분), 윤서정(서현진 분)에 대한 응원과 지지도 상당했었다.

〈낭만닥터 김사부〉 1편의 16회에는 거대병원의 숨은 실력자였던 신명호 회장(주현 분)의 인공심장 수술을 앞둔 장면이 등장한다. 위험한 수술에 고령의 환자이다보니,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망설인다. 김사부는 신회장에게 쉽지 않은 수술이며 그 자체로 환자에게 부담이 클 수 있는 위험한 수술임을 이야기한다. 신 회장은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신 회장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신 회장은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게 된다. 환자와 의사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감과 유대감을 가진 후에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011년 여름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는 주인공 이연재(김선아 분)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의사 채은석(엄기준 분)에게 담낭암 판정과 더불어 시한부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2회의 한 장면에서 채은석은 이연재에게 항암치료 과정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투로 설명한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가망이 없어

www.kci.go.kr

신약을 통한 시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듣게 되자, 이연재는 신약 치료는 물론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35]

> 이연재 : "좋은 기회?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주사 맞는 거 최대한 늦추고 싶어." (중략) "우리 아빠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항암치료 받는 내내 옆에서 지켜봤어. 무서워. 주사 맞는 순간 진짜 암환자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나 진짜 무서워."
> 채은석 : "이연재 씨는 지금도 진짜 암환자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예약은 다 차있고 3일 뒤에 오세요. 치료 안 받고 싶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치료 의지도 없는 사람한테 오늘처럼 예약시간 하나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 이연재 : "채은석. 너, 니 엄마가 암이었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2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한테 너 이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 항암치료, 나 받는다 해도 너 같은 의사한테 안 받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너 의사 자격 없어. 친구한테도 재수 없게 말하는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오죽하겠니? 니 환자들이 정말 불쌍하다. 가뜩이나 무섭고 겁나 죽겠는데."

이 에피소드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만 빠져들어 정작 질병을 가진 환자와의 상호 작용을 생각하지 못한 의사의 태도를 보여준다. 〈여인의 향기〉의 이연재의 입을 통해 표현되어 있듯, 친분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의사와 환자가 교감을 나누고 의사가 환자의 고통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레그리노는 의학의 소명이 한낱 비즈니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혹은 간호사-환자 사이의 관계 모델에

35)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다음 강연을 참조하였다.
〈의료인문학이 들려주는 의료이야기〉 1강 의료, 인문학, 의료인문학 (박윤재)
https://www.youtube.com/watch?v=_FaLHv_jzbg

www.kci.go.kr

서 상호존중과 자비의 '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의학이 때로는 산업이자 과학이고, 때로는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아가페적인 윤리와 자비의 정신이라는 것이다.[36]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이 환자의 가족에게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는 '간병간호 통합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충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적 간호사들의 부담만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간병인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병원 내 보건 위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국면에서는 환자를 가족이나 일반 간병인이 돌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의료인들에게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자와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윤리적 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부담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소위 '스카이 캐슬'을 통해 예비 의료인이 양성되거나, 고소득 직업으로만 각광받는 것은 의료인이 가지는 책임과 사회적 비중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의료인이 윤리 의식을 갖추고 인간적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위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묘사하고 다루는 '서사텍스트'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국면은 의료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서사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발휘하여 감염병

36) Edmund D. Pellegrino, "Agape and Ethics: Some Reflections on Medical Morals from a Catholic Christian Perspective",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A Pellegrino Reader,* edited by H. Tristram Engelhardt, Jr. and Fabrice Jotter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pp.370-371.

www.kci.go.kr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치열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환자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치료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과 권력, 정치 투쟁에 매몰되어 있던 의사들, 가령 드라마 〈하얀거탑〉이나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보던 악한 의사 캐릭터들보다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인에게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비현실적 요구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존중과 보상을 위한 현실적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견문기』[37]에서 "조선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으면 약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 같았다. 더구나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고 적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에 활용되는 지식, 경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병의 회복 여부에 대한 대가만 고려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의료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암에 걸린 환자가 완쾌되지 않았다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들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의사들 중에는 빈민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했었다. 1930년대 신문을 찾아보면, 「빈민 진료 거절하는 악덕의사 점증」, 「빈곤한 사람인 줄 알고 위급환자 치료 거절」과 같은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8] 이러한 진료를 거절하는 비윤리

37) H.N. 알렌, 『조선견문기』,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3, 37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적 행태는 1938년 '의료직업자신고령'과 더불어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금지되었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39] 이런 규칙 시행은 사실 의료 윤리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동원령을 내리면서 함께 시행된 조치였다.

의료의 현실과 의료 윤리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재영은 '의료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설명한다. 소위 3분 진료 역시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성형외과의 성업과 외모지상주의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40] 입원환자의 병명과 관련한 통계도 꾸준히 변했다. 1990년에는 입원 원인 1,2위가 흔히 맹장염이라 불리는 급성 충수돌기염과 현재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정신분열증이었고, 1995년에는 급성 충수돌기염과 위장염, 2000년에는 치핵과 백내장, 2010년에는 폐렴과 백내장이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갑상선, 무릎관절, 척수 질병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생활습관의 변화, 고령화, 건강검진 증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 등과 무관하지 않다.[41] 결국 박재영의 표현대로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개인의 신체 건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었다. 국가와 사회는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와 도시 집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보건 위생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신체 건강을 돌보고 검진하며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고 있다. 그 과정에

---

38) 〈빈민 진료 거절하는 악덕의사 점증〉, 『중앙일보』, 1933.4.26.
〈빈곤한 사람인 줄 알고 위급환자 치료 거절〉, 『매일신보』, 1937.10.5.
(이주영, 「근대 희곡에 나타난 제국의 조선 의사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153쪽 참조 및 재인용)
39) 「의료직업자신고령 21일부 시행규칙공포」, 『동아일보』, 1938.9.21. 2면.
40)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3, 38쪽.
41)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3, 32쪽.

www.kci.go.kr

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조차 예방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했고, 결국 탄생에서 죽음까지 병원에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료 윤리는 내가 아프게 되었을 때 '착한 의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의료 윤리의 실제적 현실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또는 미래적 예측을 위해서 우리는 문학과 대중 서사 속의 의료 서사들 속에서의 의료 윤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가 일상의 서사가 된 지금, 우리에게 의료 윤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Pellegrino, Edmund D.,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A Pellegrino Reader,* edited by H. Tristram Engelhardt, Jr. and Fabrice Jotter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_____, "Toward a Reconstruction of Medical Mor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6(2), Taylor & Francis, 2006, pp.65-71.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역, 민음사, 2011.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95(1976).

_____, 「조만득 씨」, 『이청준 문학전집 중단편소설7: 소문의 벽』, 열림원, 1998.

_____, 『이청준 문학전집 장편소설4: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2. 논문과 단행본

김현수, 「펠레그리노를 통한 의료인문학」, 『인문학연구』 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01-320쪽.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3.

원용진 외, 「메디컬 드라마의 크로노토프」, 『대중서사연구』 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169-216쪽.

이주영, 「근대 희곡에 나타난 제국의 조선 의사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139-161쪽.

정과리 외, 『의학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15-344쪽.

_____, 「한국 의학 드라마 연구 현황과 전망」, 『인문학연구』 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43-75쪽.

최우석, 「'의료인'의 의무윤리와 덕윤리의 상보적 이해: 펠레그리노(E. Pellegrino)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1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0, 39-56쪽.

3. 기타자료

〈의료직업자신고령 21일부 시행규칙공포〉, 『동아일보』, 1938.9.21., 2면.

〈의사 불신 시대 ..... 5년간 의료소송 2만건〉, 『의협신문』, 2019.5.27.

www.kci.go.kr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33)
〈전문직 중 '의사' 가장 신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2015.10.21.
(https://www.medigatenews.com/news/2144051260)
〈슬기로운 의사생활〉 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doctorlife/6/Contents/Html)

www.kci.go.kr

Abstract

Medical Narrative Texts and Medical Ethics

Choi, Sung-Min(Kyunghee University)

In this paper, I review Pellegrino's Reader, The Philosophy of Medicine Reborn. Pellegrino has emphasized the humanities' reflection on the ethics of medicine. He insists that medical ethics should be re-established as modern society changes. This paper, based on Pellegrino's view, noted the problematic situation in literature and popular narrative texts. Indeed, I wanted to see what answer medical ethics could provide for us.

Medical personnel had a philosophical dilemma or a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ethics. Pellegrino argues that medical personnel, above all, need to sympathize with the patient's pain and respond to their needs through interaction with them. This may seem like a very legitimate declaration. But a physician in literary texts and popular narrative texts is often exposed to this ethical dilemma. Through Lee Cheongjun's novel, we can reflect on how a medical personnel could lead a patient to a state of "goodness". And through medical dramas, we can grasp what ethical behaviors the public demands from a medical personnel.

Now that the world is suffering from COVID-19, medical workers are in a great troubl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respected by the public and are also enhancing their value as ethical beings. Now that medical care has become an everyday narrative, medical ethics is becoming a prerequisite for living. This paper attempt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edical ethics and to review the ethical issues embodied in medical narratives.

(Keywords: Pellegrino, Medical Narrative, Medical Ethics, Medical Drama, La Peste, Lee Cheongjun, COVID-19.)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14일

www.kci.go.kr